

而已廣活字 印本考

尹炳泰*

《目次》

- | | |
|-----------|-----------|
| 一. 머리말 | 三. 後期 印本들 |
| 二. 前期 印本들 | 四. 맷음말 |

一. 머리말

朝鮮朝 後期에 私人에 의하여 鑄造되거나 雕造되었던 수많은 種類의 活字에 대한 研究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小型의 筆書體 木活字에 대하여도, 일찌기 《大東文化研究》에 발표된 一山 金斗鍾 博士의 短文⁽¹⁾이 고작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筆者는 우리나라의 活字印刷에 대한 事實을 充明하고자奎章閣藏書를 비롯한 서울大學校 所藏의 古圖書中에서 活字本을 全部 實查하는 한편, 藏書閣·國立中央圖書館·延世大學校 그리고 高麗大學校에 所藏하고 있는 우리나라 古活字本들을 調査하여 여러가지 資料를 모은 일이 있다. 그러는 가운데, 一山先生이 이미 발굴하여 발표한 小型 筆書體의 여러가지 印本을 더 찾아내게 되었다.

아래에서 다루는 내용은 一山先生이 이미 발표하였던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先學이 이미 이루어 놓은 업적을 더 다듬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一山先生이 이 小型의 筆書體 木活字에 내린 몇 가지 假定과 事實들을 아래에 정리하여 본다.

- 가. 이 小型의 筆書體 木活字에 대하여는 文獻的 考證資料가 없다는 점.
- 나. 張混著의 《蒙喻篇》에 庚午活印이라는 純祖 10년(1810)의 印出記가 있고, 또 最初印本일 것이라는 점.

* 慶北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助教授(書誌學)

(1)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 (1967. 7), pp. 55-57 ‘9. 小型筆書體木活字.’

- 다. 張混撰의 《詩宗》도 이 당시의 印出本일 것이라는 점.
- 라. 이 활자는 監印의 일에 많은 경험과 취미를 가지고, 草隸에 능한 張混의 意匠에서 刻成되었을 것이라는 점.
- 마. 이 활자 印本은 私家詩文集과 道家書를 찍었다는 점.
- 바. 이 활자는 張混의 自家에 보유되었다가 哲宗 9년(1858)경부터 崔星煥에게 移藏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 사. 이 활자는 小型의 筆書體로서, 小冊子를 인쇄하는데 편리하므로, 道家書를 印出하는데 이런 小型活字가 요청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蒙喻篇》·《詩宗》·《性靈集》·《夢觀詩稿》·《伴圃遺稿》·《演經篇》·《玄化寶鑑》·《開化大程》 등 8種의 이 活字 印出本을 私藏本에서 골라 例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一山先生의 意見은, 이 活字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私藏本에 한하였기 때문에, 이 활자로 찍어낸 印本들을 더 많이 추려내지 못한 점과 《蒙喻篇》 이외에도 그 보다 앞서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인본들을 더 밝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張混의 文集이 稿本인 채로 2종이나 남아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한 점을 들 수가 있겠다.

아래에서는 이 筆書體活字로 찍은 여러 印本을 實查한 결과를 들어 一山先生의 가정을 확인하는 한편, 印刷本에 대한 形態書誌的인 면을 살펴 보려고 생각한다.

이 小型의 筆書體木活字로 印出한 책은 모두 23종을 찾아내었다. 그중 8종은 一山先生이 이미 찾아내었음으로 새로이 알려진 것은 15종이 되는 셈이다. 이들 23종은 활자의 활용시기로 보아 張混의 생존시인 전기와 没後의 후기로 대별하여 그 특징이 나타난다.

二. 前期의 印本들

前期의 印本은 9종을 찾아내었다. 이 책들은 張混의 没年인 純祖 28년(1828) 이전에 印出된 책으로, 주로 張混의 著編作과 그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詩文集·詩選들이 대부분이다.

1. 唐律集英

이 책은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에 있는 六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故 六堂 崔南善先生의 愛藏本이다.⁽²⁾ 全 4卷 2冊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가 25.6cm 가로[幅]가 16.8cm이다. 表紙는 卍字紋의 綾華紋으로 된 卵黃色의 壯紙로 되어 있다.

제 1 책의 卷首는 〈凡例〉로 시작된다. 이 〈凡例〉는 모두 4개조로 되어 있다. 凡例 아래쪽

(2) 請求記號 六古 D2-A.

에는 「新平韓宣德明叔之印」이라는 陰刻方形朱印이 찍혀 있다.

凡例는 條次敍이 시작되는데 그 첫머리에서 書名을 「集英」이라 한 연유를

詩者言之英 律者詩之英 級選又律之英 英故顏曰集英

이라 적어 놓고 있으니, 이는 《弘齋全書》의 〈羣書標記〉에 있는 「律英」의 親撰題에

詩者言之英也 律者詩之英也⁽³⁾

라고 쓴 글과 너무나相通하고 있다. 〈凡例〉의 둘째조 다음부터는 이 책의 編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어 놓고 있다.

諸家 次以四唐而晚唐 分爲上下者 篇什多故也

他選 多有姓名相左者 今選則 原題下別註 存疑以備究觀

每篇 篇端 圈以標 選圈之多少 欲以尋 前人趣向 而無圈者今選

이를 보면 本文의 邊欄에 頭註로 圓圈속에 「品·解·吹·髓·直·歸·體」 등이라고 표시하여 놓은 것은, 이미 다른 詩選속에서 골라 넣은 것을 다시 이 《唐詩律英》 속에도 넣었으며, 無圈인 것만 張混이 골라서 수록한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미 他選集에 골라 넣은 것을, 그 典據를 일일히 밝힌 태도는 그에게 校讐學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 하겠다.

〈凡例〉의 뒷면은 圖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標題紙가 있다. 중앙에 大型木刻連字로 보이는 「唐律集英」이라는 書名이 있고, 좌측하단에 활자로 「庚午活印」이라는 이 책의 인출년도가 조판되어 있다. 이 인출년도로 보아 純祖 10년(1810)庚午에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卷首題는 「唐律集英」이며 卷次는 「卷一」이다. 이 卷一 제1장 앞면의 版式을 적어보면

四周雙邊. 牛匡 : 18.2 × 12.4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唐律集英」上白魚尾(單線·單絲) 「卷一」
〈張次「一」〉欄上 白圓圈內 黑字「品·解·(直, 歸, 吹, 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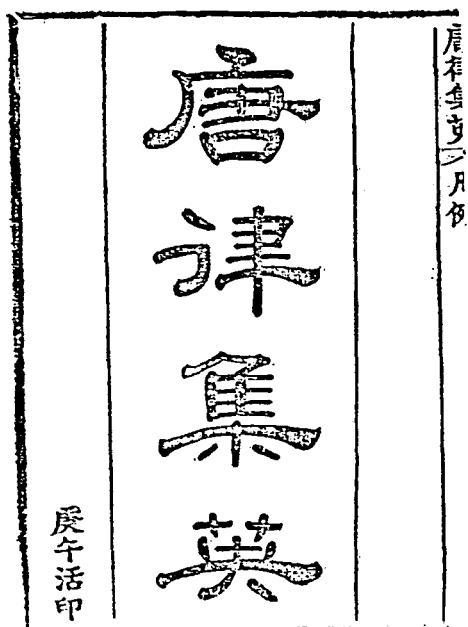
와 같다(圖 2 참조).

이 卷一은 〈初盛唐〉으로 모두 34장이며, 수록된 사람들을 보면 李嬌·宗楚客·杜審言 등 41명으로, 그 중에서 李白과 杜甫의 작품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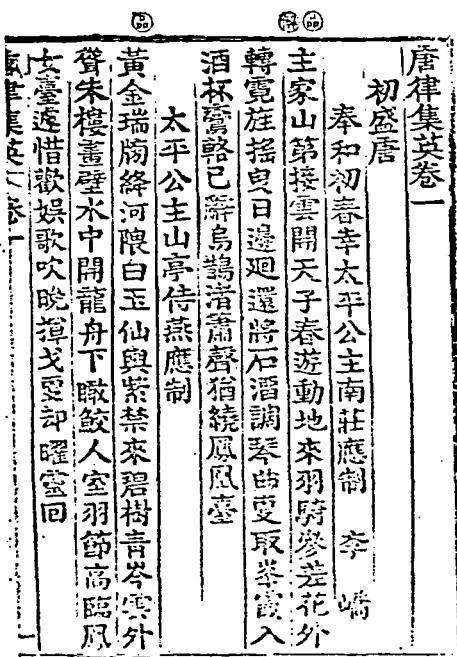
卷二是 〈中唐〉으로 모두 44장이며, 수록된 사람은 劉長卿·秦系·張蕭遠 등 53명으로, 그 중에서는 白居易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제 2책은 卷三과 四로 〈晚唐上·下〉로 나누어져 각각 36장과 42장이 合綴되어 있다. 上

(3) 正祖. 羣書標記. 서울 : 學文閣, 1969. 影印本. p. 206.



■ 1. 唐律集英. 標題紙.



■ 2. 唐律集英. 卷一. 第1張. 앞면.

에는 李商隱·杜牧·許渾 등 26명의 작품이, 下에는 皮日休·李山甫·來鵬 등 48명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唐律集英》은 唐代의 詩人 159명의 작품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律詩만을 추려 뽑아 모은 것으로서, 다음에 나오는 《詩宗》을 편찬하기 이전에 예비적인 작업으로 선행하여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이 편찬된 것은 인출되기 1년전인 純祖 9년(1809) 己巳이니, 이는 《唐律集英》과 함께 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序文이 남아 있어 알 수 있다. 또 이 《唐律集英》에는 著作者의 표시가 전혀 없어 누구의 편찬인가 알 수 없었지만, 이 역시 序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張混의 未刊行 原稿本인 서울大藏本 《而已廣集》 제 4책의 卷之十一 序中에

唐律集英序

七言律 推李唐爲尤而莫之埒何也 於唐倡而盛也 選者衆 而鼓吹 元遺山也 品彙 高擧也 律髓 方回也
三體 周伯放也 詩解 唐汝詢也 詩歸 鍾惺譚元春也 此特著行者也 然而 或解以諸體 或偏於盛晚 或不舉李杜 偏則枯 雜則不專 借乎 盡美未盡善也 然則 如何而可 曰 炙吾所好也 大羹玄酒亦吾所好也
取舍在乎心乎 ……(中略)…… 三餘之暇 合衆選而芟輯攢英 編爲四卷 未可謂集大成亦可云備述矣 進退得失當俟罪 當世君子 歲己巳姑洗之月哉生魄 誠于而已廣中⁽⁴⁾

(4) 張混. 而已廣集. 寫本. 第4冊.

이라 적혀 있어, 張混에 의하여 편찬되었음을 그 동기 등을 알 수가 있다. 특히 邊欄의 頭註의 圓圈속의 略字들이, 위 序文 속에 언급한 著作들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또 이들 인용의 회수를 표시한 것은 오늘날 計量書誌學에서의 선구적 방법을 취했다는 느낌도 들어 매우 흥미롭다.

이 『唐律集英』이 一山이 가장 먼저 든 『蒙喻篇』과 같은 純祖 10년 庚午의 印本이라 할지라도, 그 보다 앞선 일본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첫째, 『蒙喻篇』의 활자에 비하여 磨耗된 글자나 缺劃·脫劃된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둘째, 新刻의 활자로 찍으면 흔히 보이는 진한 墨色이, 全冊에 걸쳐 골고루 나타남을 보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唐律集英』은 이 활자로 찍은 最初印本일 가능성성이 많은 책으로, 종전에 初印本이라 한 『蒙喻篇』보다도 앞서 인출한 책이라 말할 수가 있겠다.

2. 近取篇

이 책은 大韓出版文化協會에 所藏하고 있다. 모두 1책이며, 朱色의 緞絲로 四針眼으로 제책되어 있다.⁽⁵⁾ 表紙는 改裝으로 보이며 卍字紋으로 된 黃色表紙이다. 脊接紙로는 書名을 알 수 없는 校書館筆書體鐵字多混補字로 인쇄한 破紙를 쓰고 있다. 表紙上에는 貼紙에다 「文字類〈單〉」이라 墨書되어 있어, 이 책이 一名「文字類」라고 불리웠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른쪽에는 墨書로 「丁亥端陽節越十朝雲風軒書」라 있어, 純祖 27년(1827)이나 高宗 24년(1887)에 改裝되지 않았나 생각해 한다. 책의 크기는 세로가 25.5cm, 가로[幅]가 15.8cm이며, 線裝方冊本이다.

이 책은 卷首題가 없이 바로 제 1장이 시작된다. 이 제 1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 : 17.85 × 11.95cm. 每雙行間 有界. 10行 20字(乙中 4字 空白) 版心 : 上下白口. 上白魚尾(單線. 單絲) 「近取篇」(張次) 單線.

과 같다. 이 책의 版心에 「近取篇」이라 되어 있어, 이 책의 書名임을 밝혀주고 있다(圖 3 참조).

이 책은 제 1장부터 제 13장 뒷면 제 2행까지는 四字로 된 俗談(格言)·故事熟語 1046句를, 4字 각 4段式으로 수록하고 있다. 제 13장 뒷면 제 3행부터 제 14장 뒷면 제 2행까지에는 「名下士·袁天綱·許多般」 등 3字의 熟語 등 98句를, 제 14장 뒷면 제 3행부터 제 15장 뒷면 끝까지에는 「天然·沉滯·犒軍·虛僞·草草」 등 2字의 熟語 등 192句를 6段으로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語句는 모두 1336句가 된다.

그리고 제 15장 뒷면 마지막 행 하단에 「庚午活印」이라는 이 책의 印出記가 있다(圖 4 참조). 이 인출기로서 이 책 역시 純祖 10년(1810) 庚午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5) 이 책은 大韓出版文化協會의 朴啖里 先生의 도움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삼가 감사드린다.

| | |
|------|------|
| 愚駢 | 狐疑 |
| 顛厚 | 猶豫 |
| 幾微 | 輕率 |
| 節拍 | 索莫 |
| 更讀 | 詼諧 |
| 語錄 | 往復 |
| 久勤 | 健忘 |
| 自辟 | 全發 |
| 着實 | 疎懶 |
| 優劣難分 | 織織玉手 |
| 虛實相蒙 | 蟠蟠老翁 |
| 至誠感天 | 惄於威風 |
| 今時初見 | 意詢同 |
| 號令生風 | 號令生風 |
| 金意詢 | 金意詢 |
| 各不同 | 各其所長 |
| 將無還令 | 大相不同 |
| 塵土之中 | 樂在其中 |
| 轆轤之下 | 權在足下 |
| 老成之人 | 人馬亦同 |
| 幼提之童 | 冠童自別 |
| 間於齊楚 | 亦在逐中 |
| 秋月春風 | 猶屬歌後 |
| 六里青山 | 腰間突出 |
| 四面春風 | 眼前莫同 |
| 犬馬之忠 | 古今不同 |
| 循環之理 | 大小不敵 |
| 鮮鷄之勢 | 固執不通 |
| 不息之功 | 真情所懷 |

圖 3. 近取篇. 第 1 張 앞면.

| | |
|----|------|
| 皆駢 | 立落 |
| 文具 | 胡亂 |
| 澆溉 | 藉藉 |
| 無靡 | 不仁 |
| 蕪駁 | 瑕疵 |
| 下習 | 逢場 |
| 落漏 | 釣名 |
| 上德 | 施白 |
| 蕩滌 | 彷彿 |
| 塞責 | 談博 |
| 鑿輪 | 闊闊 |
| 等驟 | 闊闊 |
| 鈞名 | 搏節 |
| 釣名 | 庚午活印 |
| 施白 | 了了 |
| 彷彿 | 胥胥 |
| 闊闊 | 荒華 |
| 闊闊 | 渴急 |
| 搏節 | 睂睂 |
| 談博 | 櫻着 |
| 施白 | 全發 |
| 闊闊 | 健忘 |
| 闊闊 | 往復 |
| 搏節 | 語錄 |
| 闊闊 | 久勤 |
| 搏節 | 自辟 |
| 闊闊 | 着實 |
| 闊闊 | 未祐 |
| 闊闊 | 久勤 |
| 闊闊 | 自辟 |
| 闊闊 | 未祐 |
| 闊闊 | 着實 |
| 闊闊 | 優劣難分 |
| 闊闊 | 虛實相蒙 |

圖 4. 近取篇. 印出記.

이 책에는 著作者의 표시가 없어서 누구의 저작인가 알 수 없지만, 《壺山記》에 있는 〈張混傳〉에 보면

……其所著錄有……近取篇……印行于世……⁽⁶⁾

라 밝혀져 있어, 張混의 저작임을 알 수 있다. 近世의 兒童用教科書의 편찬자로서 편찬이 編纂한 《兒戲原覽》·《蒙喻篇》·《切用方》·《童習數方圖》와 함께, 이 책도 아동용 교과서로서 편찬 인행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책 역시 《蒙喻篇》보다 앞서 인출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앞의 《唐律集英》의 경우와 같다.

3. 蒙喻篇

이 책은 前間恭作이 《古鮮冊譜》에다 소개하여서 일찍부터 알려져 있는 책이다. 여기에 紹介된 東洋文庫 藏本 이외에도 延世大學校 藏本이 貴重書展示에 출품된 일도 있다. 實見한 책으로는 서울大·藏書閣·高麗大本이 있으며, 藏書閣本에 대하여는 한글어휘를 중심으로 《國學資料》第18號에 그 해체를 편자가 발표한 일도 있다.⁽⁷⁾ 이제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다루어 본다.

이 《蒙喻篇》은 全 2 卷 1 册으로, 세로가 24.8cm 가로가 16cm인 線裝方冊本으로 되어 있

(6) 趙熙龍. 壺山記. 寫本. 第25張.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

(7) 尹炳泰. “蒙喻篇.” 國學資料, 第18號, (1974. 12.), pp. 13-1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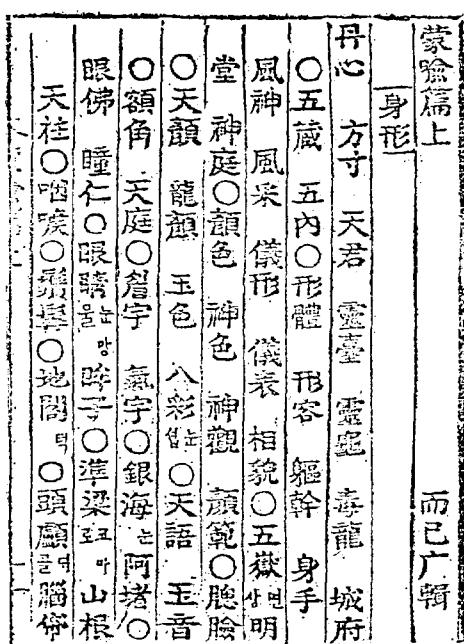
다. 表紙는 卍字紋의 綾華紋이 있는 卵黃色의 종이를 쓰고 있다.

첫째 卷은 卷首題가 「蒙喻篇上」으로 되어 있으며, 卷首題와 같은 行의 아랫쪽에 이 책의 編著의 號로 표시된 著作表示가 「而已廣輯」이라고 인쇄되어 있다(圖 5 참조). 「上」의 版式을 참고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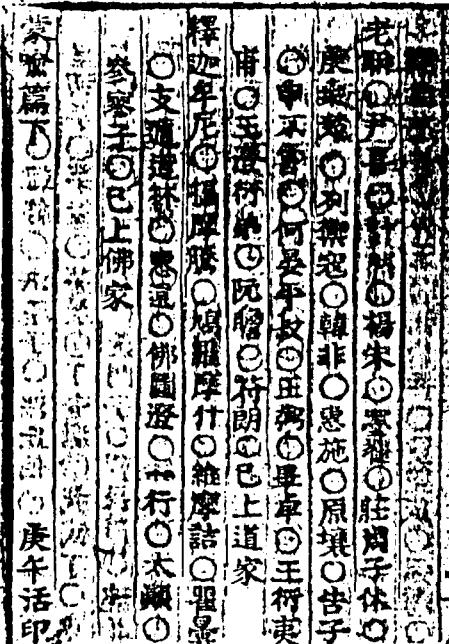
四周雙邊, 半匡 : 18.2 × 12.2 cm. 有界, 10行 20字, 注한글小字 雙行, 白圓圈有, 版心 : 上下白口, 上白魚尾(單線, 單絲)「蒙喻篇上」(張次)單線。

이 책 「上」은 모두 23장이며, 내용은 「實形·年紀·稱號·位分·名物」 등으로 나누었고 경우에 따라서 더 세분한 어휘 총 1,049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어휘들은 기본어와 동의어로 나뉘어지며, 기본어 사이에는 白圓圈을 넣어 구분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일 때에는 우리나라 말로 된譯을 한글 雙行으로 밝혀 놓았다. 이 한글 어휘는 모두 383종이나 되어 한글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겠다.

「下」는 모두 18장이며, 卷首題아래에 같은 저작자 표시가 있다. 이 「下」는 분류별 인명일람으로, 우선 「德行·勳業·文章·藝術·稟賦·隱逸·異端」으로 대별하였고, 필요에 따라 다시 세분하였다. 각 인명 사이마다 白圓圈으로 구별하였고, 유별 끝마다 세분을 표시하고 있다. 수록된 中國人名은 1,441명분이며, 19종의 書名도 있다. 인명의 표시에서는 姓·名만 쓴 것이 대부분이나 때로는 尊號·號·別名·字·官爵까지도 함께 표시한 경우도 있다.



■ 5. 蒙喻篇. 上. 第 I 张. 正面.



■ 6. 蒙喻篇. 印出記.

이 「下」의 제18장 뒷면 마지막에 하단에 「庚午活印」이라는 印出記가 있어, 이 책이 純祖 10년(1810) 庚午에 인출된 것을 밝히고 있다(圖 6 참조).

이 책 역시 앞의 《近取篇》과 마찬가지로 아동용 교과서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인출의 차례는 활자의 마멸이 있는 것과 缺劃·脫劃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앞의 두 책보다는 늦은 것 같다.

4. 詩 宗

이 책의 零本 落帙은 여러 圖書館에 남아 있으나, 完帙을 實查한 것은 藏書閣과 國立中央圖書館 그리고 青松의 南谷精舍本 뿐이다. 처음부터 絶句만 모은 己集이 따로 많이 印出되어서인지 零本으로 가장 많이 통행되고 있다. 完帙은 全 13集 24卷 13冊으로 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가 25.8cm 가로[幅]가 16.7cm이며, 卍字形 菱華紋을 押入한 卵黃色 表紙를 쓰고 있다.

이 책에는 標題紙나 저작자의 표시가 전혀 없으며, 제 1책의 첫머리에 〈義例〉 2장과 〈詩宗總目〉 3장이 있고 本文의 閨集이 시작된다. 이 閨集의 卷次는 「卷首」로 되어 있다. 이 「卷首」가 있는 제 1장의 앞면의 版式을 참고로 보이면

四周單邊. 半匡 : 18.2×12.2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詩宗」上 白魚尾(單線, 單絲) 「閨集」
〈張次〉

와 같다(圖 7 참조). 이 《詩宗》 閨集의 卷首는 〈集論〉 17장과 〈世次〉 72장인 바, 이 부분은 緒論과 詩人們의 간단한 전기를 서술한 데 지나지 않으며, 詩集으로서의 본체는 〈子集〉의 卷一로 시작된다. 〈子集〉 이후의 版式도 閨集과 거의 같으나 다만 圖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欄上에 小字로 「古逸·漢·魏·晉·宋」과 같이 시대를 표시한 眉註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檢索의 편의로서 알아둔 것 같이 생각된다. 〈閨集〉부터의 總目을 略하여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義例, 詩宗總目
閨集卷首 : 集論, 世次.
2. 子集卷一 裸言, 附 三言 古逸至宋.
子集卷二 四言 古逸至宋
3. 丑集卷三 古詩一 五言 漢至魏
丑集卷四 古詩二 五言 晉
4. 寅集卷五 古詩三 五言 宋至隋
寅集卷六 古詩四 五言 唐上
5. 卯集卷七 古詩五 五言 唐中
卯集卷八 古詩六 五言 唐下至明
6. 辰集 卷九 古詩七 七言 古逸至唐上
辰集 卷十 古詩八 七言 唐下至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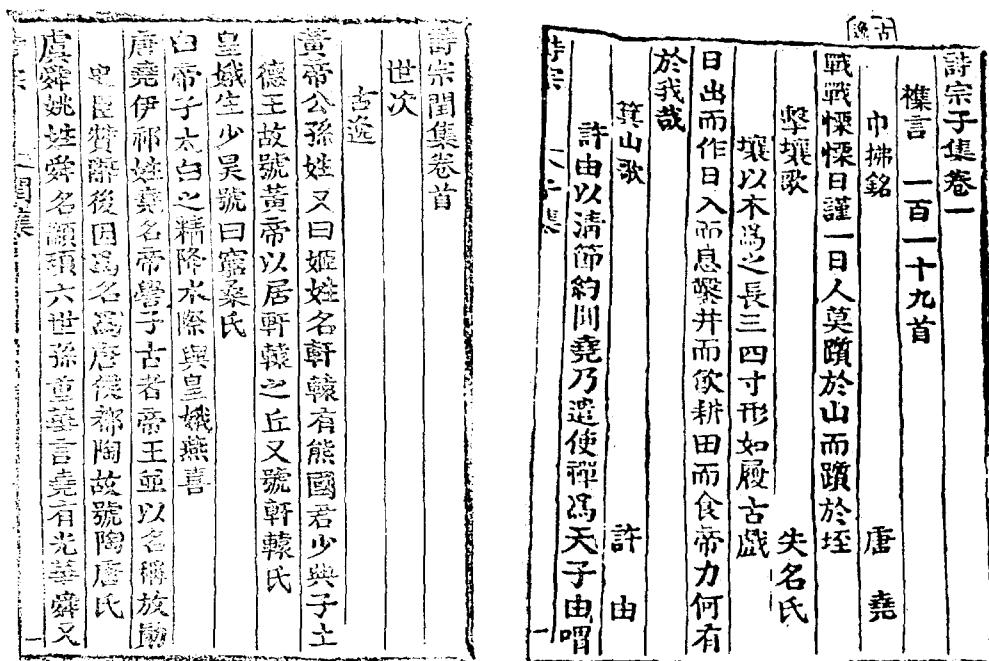


圖 7. 詩宗 閨集 卷首 第 1 張 앞면

圖 8. 詩宗 子集 卷一 第 1 張 앞면

7. 己集 卷十一 絶句一 五言 漢至明, 附六言 漢至明
- 己集 卷十二 絶句二 七言 北魏至明
8. 午集 卷十三 律詩一 五言 齊至唐上
- 午集 卷十四 律詩二 五言 唐中下
9. 未集 卷十五 律詩三 五言 宋至元
- 未集 卷十六 律詩四 五言 明
10. 申集 卷十七 律詩五 七言 唐上
- 申集 卷十八 律詩六 七言 唐中
11. 酉集 卷十九~二十 律詩七~八 七言 唐下
12. 戌集 卷二十一 律詩九 七言 宋上
- 戌集 卷二十二 律詩十 七言 宋下至元
13. 亥集 卷二十三 律詩十一 七言 明上
- 亥集 卷二十四 律詩十二 七言 明下, 附排律 五七言 唐至明

이 책 머리에 있는 「義例」는 張混의 文集인 《而已廣集》卷之十四 雜著 속에 「詩宗義例」라는 題目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義例의 제 1 조에서 古逸·漢魏代로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의 裸言·四言·古詩·絕句·律詩 등에서, 《文選·詩紀·品彙》등의 평찬에서 미진한 결점을 보완하여 평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詩宗》은 中國詩集으로서는 훌륭한 집대성임을 알 수가 있다.

이 《詩宗》이 張混의 대표적인 평찬임은 그의 약전을 실은 모든 저작에서, 이 책을 언제

든지 가장 먼저 그의 저작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간다. 張之琬은 《斐然箱抄》에서

常以歷代詩選 難於統攝 乃上自古逸 下及明季 廣選分類 爲詩宗二十六卷⁽⁸⁾

이라 하여, 모다 26卷을 편찬했음을 밝히고 있다. 現存本이 子~亥集까지 각 2권씩 모두가 24卷 뿐인 것을 보면, 卷首에 있는 閩集의 集論과 世次를 각각 1권씩으로 보고 합한 권수가 26卷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張混이 이 《詩宗》을 언제 편찬한 것인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千壽慶과 함께 편찬한 《風謠續選》보다도 앞에, 그리고 《唐律集英》보다도 언제든지 앞에다, 그의 傳記資料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보면 純祖 8년(1808)까지에는 편찬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詩宗》의 간행시기는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밝힐 수 없으나, 이 책을 찍은 筆書體木活字의 磨滅度 등을 보고 짐작한다면, 앞에 든 3종의 일본들 보다는 나중에 印行한듯한 느낌이 듦다. 筆書體木活字는 이 《詩宗》과 같은 방대한 저작을 찍기 위하여 해당초 만들어졌지만, 그 初印本으로 《唐律集英》과 같은 小選集을 찍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학동들을 위한 童蒙書인 《近取篇·蒙喻篇》을 먼저 찍은 다음에 이 《詩宗》을 완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이 책을 찍은 時期는 앞에서 든 세가지 일본보다는 늦으나, 다음에 드는 《蒼巖集》보다는 이른 純宗 10~15년간(1810~1815)이 아닌가 짐작된다. 더 정확한 인출시기는 관계문헌이 나타남을 기다려야겠다.

5. 蒼巖集

《蒼巖集》은 서울大學校圖書館의 奎章閣藏書 속에서 1部를 實查할 수 있었다.⁽⁹⁾ 이 책은 安山 金尙彩 敬叔의 文集 3卷과, 그의 아들 三省齋 金濟良 士恭의 遺稿 不分卷과 合綴하여 1冊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크기는 세로가 26.5cm이고, 가로[幅]가 17.7cm인 線裝方冊으로 되어 있다.

이 책 첫머리에는 標題紙가 있는데 거기에

丙子季春蒼巖集 活印世藏

라고 되어 있어, 純祖 16년 丙子(1816)에 활자로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圖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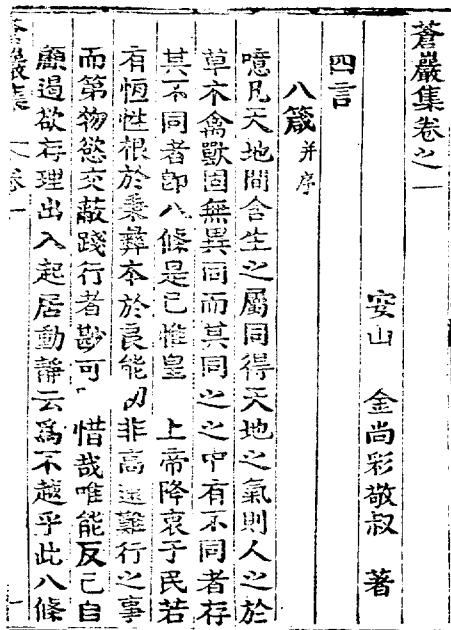
標題紙 다음에는 木板으로 筆蹟을 轉刻한 「蒼巖集序」 5장이 있다. 序의 말미에 「…丙子維夏北海居士叙」라 되어 있고, 이어 동시에 木刻한 것으로 보이는 木刻印 2종이 있는데 거기에 「趙鍾永」과 「元卿」이라 있는 것을 보면, 序文은 趙鍾永이 쓴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어 〈蒼巖集目錄〉 11장이 筆書體木活字로 印行되었고, 다음이 本體의 卷之一이 나온다.

(8) 張之琬. 斐然箱抄. 木活字本. 卷之三 第22張 뒷면.

(9) 請求記號 奎 1234.



■ 9. 蒼巖集 標題紙



■ 10. 蒼巖集卷之一 第1張 앞면

이 卷之一의 版式을 보면

四周雙邊. 半匡：18.7×13cm. 有界. 10行 20字. 版心：「蒼巖集」上 白魚尾（單線. 單絲）「卷一」〈張次〉

와 같다(圖 10 참조).

이 책의 卷之一~三은 筆書體木活字로 인출되어 있으며, 각각 19•20•11장으로 되어 있다. 이어 〈附三省齋遺稿目錄〉 1장과 〈附三省齋遺稿〉 4장이 역시 筆書體木活字로 인출되어 있다. 이 附錄이 蒼巖의 아들인 金濟良의 遺稿이다.

이 附錄의 다음에 나오는 글 2首가 本稿의 主體인 而已廣 張混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첫 首의 글에는 題도 없으며, 다만 版心에 「蒼巖集」, 「題」라고만 있는 글 1面이 筆書體木活字로 찍혀 있다. 그 글에

我祖考蒼巖公 有私稿一冊 先親在時 每欲開印 力屈未暇 遂齋志而捐世… 于今十餘季 始謀刊而 張雅士元一<混>氏 樂成人之志 專幹其勞 亦可感也 鳴呼 先考生時…吟咏…只有小詩十餘首及 臨終前一日 親書遺誡一章 以遺不肖小子… 刊附蒼巖集後… 丙子三月初十日 不肖子 宗軾泣血謹題

라 씌어 있어, 張混이 이 《蒼巖集》을 간행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張混은 간행에만 힘 쓴 것이 아니고, 이 책의 〈後叙〉도 지어 주었으니, 그 글은 《而已廣集》 卷之十一⁽¹⁰⁾에도
(10) 張混. 前揭書. 卷之十一.

남아 있거니와 前記 金宗軾의 〈題〉에 이어 筆書體木活字로 찍은 〈蒼巖集後敍〉 1장에

…吾友金元直宗軾氏 一日…曰… 吾祖蒼巖公… 吾父三省齋… 所著述 今將就王考詩文 付叢黎 末附先子遺編可否… 余讀盡卷 乃喟… 使國中之人成誦… 粟州張混謹題

라 되어 있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金宗軾은 張混의 친우이므로 그가 이 《蒼巖集》을 간행하여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後敍〉에 있어 筆蹟을 그대로 木板에 轉刻한 〈書蒼巖集後〉 3장의 말미에 「丙子閏夏豐壤趙寅永題」라 있어, 純祖 16년(1816)의 윤 6월에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6. 藥塢碑謨帖

이 책은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 기증된 故 具滋均 教授의 藏書에서 잠깐 보아 알게 된 책이다. 1책이며, 그 크기는 세로가 26.9cm이고 가로가 17.2cm이다.

내용은 藥塢 嚴啓膺의 回甲日인 正祖 21년(1797) 丁巳 8월 17일에 친우들이 모여 唱和한 詩를 엮은 〈藥塢碑謨帖〉 9장과, 따로 藥塢의 祭文·挽詞가 4장이 合綴되어 있는 小冊子이다.

이 책 첫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 18.2 × 12.5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藥塢碑謨」 上 白魚尾 (單線, 單絲) 「詩」 (張次)

와 같다(圖 11 참조). 燕塢의 祭文의 文首에 「維歲次丙子六月乙未朔切五日… 嚴公之靈…」이라 있어, 이 책의 印出年度가 純祖 16년(1816) 6월 이후인 것을 짐작케 한다.

7. 錦衾記實詩

이 책은 앞의 〈藥塢碑謨帖〉과 合綴되어 있는 故具滋均教授藏本을 본 것이다. 따로 單行本도 있는 모양으로 同名의 책이 行世하고 있으나 實查하지 못하였다. 全文이 9장으로 되어 있으며, 卷首는 「錦衾記實詩序」라 하여 卷首題와 序題를 겸한 書名만 있다. 그 版式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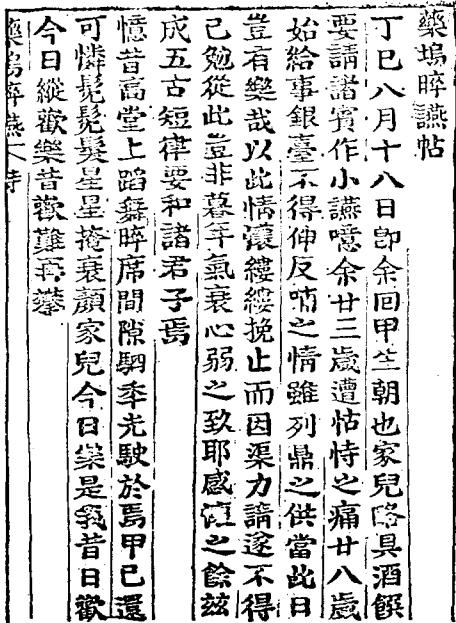
四周單邊. 半匡 : 18.2 × 12.6cm. 有界. 10行 20字, 小字 單行. 版心 : 「錦衾記實」 上 白魚尾 (單線, 單絲) 「序」 (張次)

와 같다(圖 12 참조).

이 책은 藥塢 嚴啓膺이 그 父 晚香齋 嚴漢朋에게 清國의 雍正帝가 潤筆料로 보낸 錦衾을 보고 그 事實을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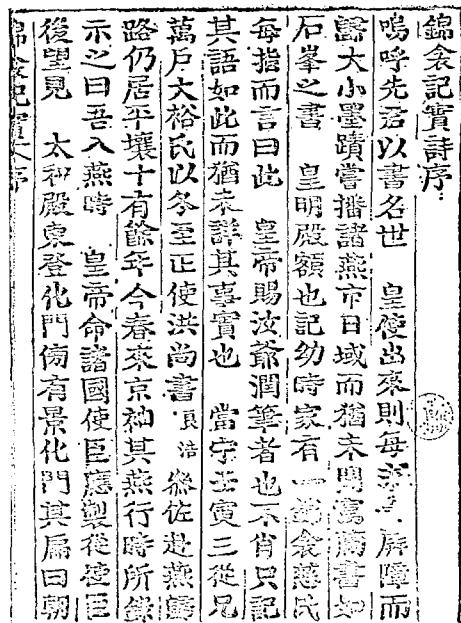
嚴漢朋에 대하여는 張志淵의 《逸士遺事》나 이를 역한 《韓國奇人列傳》에 略傳이 실려 있으며⁽¹¹⁾ 잘 알려진 肅宗·英祖朝의 名筆이다. 그의 글씨로 된 啟文이 雍正帝의 눈에 뜨이자,

(11) 張志淵. 韓國奇人列傳. 金英一譯. 서울 : 乙酉文化社, 1969. (乙酉文庫, 19), p. 166.



樂房草集

■ 11. 藥塲醉謙帖, 第 1 張 앞면



■ 12. 錦衾記實, 序, 第 1 張 앞면

使臣便에 锦衾을 潤筆料로 보내 「景化門」의 扁額을 써달라 하여 가져가, 太和殿 동쪽 登化門곁의 景化門에다가 扁額을 새겨 걸어 두었다고 할 만큼, 그의 글씨는 유명하였다. 그 후부터는 사신들이 올때마다 그의 글씨를 받아 갖고 있으며, 中國에서 널리 애호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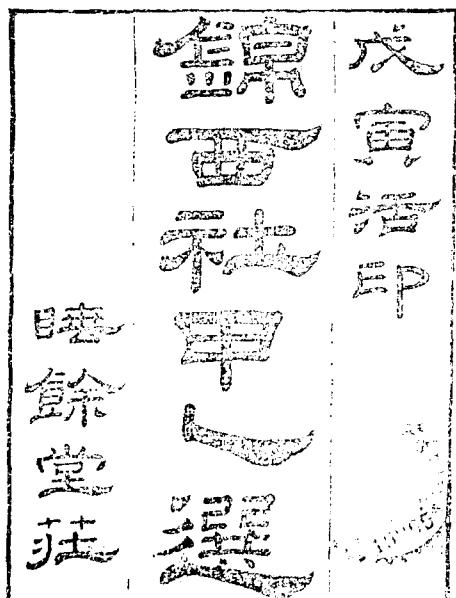
嚴啓膺이 이 記實을 지은 적은 동기는 正祖 6년(1782)壬寅에 三從兄되는 萬戶 嚴大裕가 冬至正使로 간 耳溪 洪良浩의 隨行員으로 燕行하고 돌아와서 景化門의 扁額을 各國使臣과 함께 보고온 바의 전한 말을 듣고 난 다음이다.

이 《錦衾記實詩》의 인출년도도 앞의 《藥塲醉謙帖》과 거의 동시인 純祖 16년(1816) 6월 이후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8. 錦西社甲乙選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華山文庫本과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藏本을 實查하였다. 嶺南大藏本은 唐紙에 인쇄한 책이며, 表紙도 唐紙에다 彩色으로 그림까지 그린 美麗本이다. 모두 1책으로 그 크기는 세로가 23.2cm이고 가로[幅]가 15.6cm인 線裝方冊本이다.

첫머리에는 「戊寅活印·錦西社甲乙記·睡館堂藏」이라고 木板으로 찍은 標題紙가 있다(圖 13 참조). 이어 여러가지 序文이 7首나 있는 바, 그 序題와 作字日紙·人名을 略記하면 아래와 같다.



■ 13. 錦西社甲乙選, 標題紙.

| | | | | |
|--------|-------|-------|---------|-----|
| 錦西社甲乙選 | 月城 | 鄭守赫 | 空護 | 編輯 |
| 潔州 | 張旭 | 又頤 | 校正 | |
| 慶州 | 李興潤 | 敬之 | 參訂 | |
| 課韻 | 東○詠 | 玉美人花 | | |
| 珠詞許同 | 花開四子態 | 一笑醉薰風 | 玉頰千人上瓊枝 | |
| | 卉中隨簪頻 | 如白伴燭暗 | 爭紅金谷春 | 如繡綠 |
| | 天然呈美態 | 弱似不勝風 | 嬌笑斜陽裏 | 鬢噴綉 |
| | 弱似不勝風 | 嬌笑斜陽裏 | 鬢噴綉 | |
| | | | 省齋 | |

■ 14. 錦西社甲乙選, 第 1 張 앞면.

- ① 總叙「…戊寅長至曰能穀翁書」(木刻印「王土止」) (1張)
- ② 甲乙選序「…故一二同志 執聚紙地 以付工匠 一一刊出… 上之十八年戊寅季夏上旬 省齋韓應範序」(2張)
- ③ 甲乙選序「…歲丁丑夏… 翼年重陽之三日竹溪書」(2張)
- ④ 甲乙選序「…戊寅斷壺月上休完山崔東益書」(1張)
- ⑤ 甲乙選序「…上之十八年戊寅流火月既望長興魏完圭君玄甫謹序」(1張)
- ⑥ 甲乙選序「…是季陽月潔州張旭遂書于睡餘堂中」(1張)
- ⑦ 甲乙選序「…丁丑抄秋花溪小隱月城鄭守赫識于花月堂」(2張)

이序文 10장이 끝난 다음에 〈錦西社甲乙選題名錄〉 2장이 있다. 여기에는 省齋 韓應範, 小廣 張旭, 學古堂 魏完圭, 菊史 崔東益, 水西齋 金灝, 睡鄉 金聲寬, 獨醒庵 孫壽洪, 徒山竹溪 鄭守赫, 花溪小隱 鄭守赫 등 9명의 字·號·生年·本貫 그리고 수록한 詩의 首數가 적혀 있다. 이어本文이 시작하는데, 卷首題는 「錦西社甲乙選」으로, 다음 3행에 걸쳐 이 책의 編輯·校正·參訂者가 밝혀져 있다(圖 14 참조). 本文 첫장 앞면의 版式은

四周雙邊, 半匡 : 17×12cm. 有界, 10行 18字. 版心 : 「錦西社甲乙選」上 黑魚尾 (單線, 單絲) 〈詩〉 〈張次〉 單線, 下白口.

와 같다. 本文 13장이 끝난 다음에 〈跋〉 1장이 있는 바 거기에

…況而已・能穀兩丈人 誘進之 褒揚之 余亦樂觀厥成 敢此忝校…戊寅季冬 慶州李興潤書

라고 있는 것을 보면, 而已廣 張混이 그의 長子 旭이 校正한 結社詩友의 詩를 간행하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마지막 〈跋〉의 날짜가 純祖 18년(1818) 戊寅 12월이므로 늦어도 그 다음해(1819)에는 간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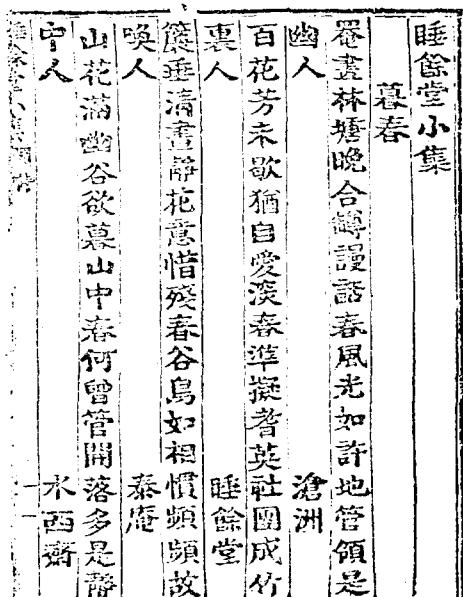
9. 睡餘堂小集

이것은 前記 《錦西社甲乙選》에 合綴된 것과 校書館筆書體鐵字印本의 條接紙에서 零葉을 實查한 데서 알게 되었다. 머리에 〈睡餘堂小集序齒錄〉 1장과 本文 2장 등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다. 序齒錄에는 滄洲 趙熙龍, 泰庵 張道元, 陶然居士 李興潤과 앞의 《錦西社甲乙選》에도 나오는 張旭, 金灝, 鄭宇赫, 鄭守赫 등 7인의 이름과 字·號·生年·本貫 등이 기록되어 있다. 本文의 첫머리에는 卷首題가 있으며, 그 版式은 《錦西社甲乙選》과 거의 같다(圖 1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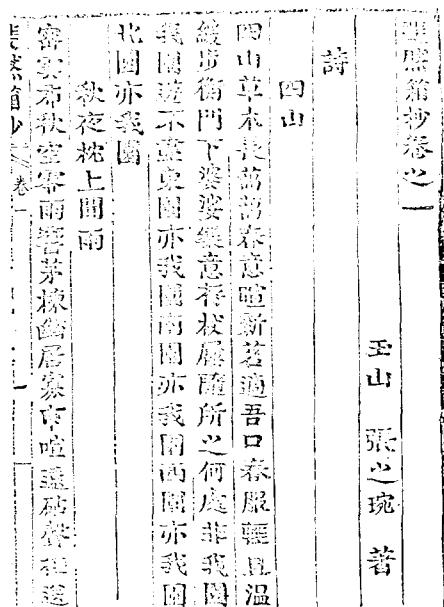
이 《睡餘堂小集》에서 중요한 것은 그 本文의 마지막 부분에 「次諸生韻」이라는 1首의 詩가 있고, 그 다음에 而已廣의 글로 보이는

人生貴適志 樂不必絲竹 交不必富貴 得一日之間 暢良辰之懷 斯亦足矣 小集而成 小詩序齒而列名姓
觀此而講世誼 其各勉旃

라 있고 「而已翁」이라는 署가 있는 점이다. 이로 보아 張混이 그 아들과 아들의 친우들의 詩를 간행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 15. 睡餘堂小集, 第1張 앞면.



■ 16. 斐然箱抄, 卷之一 第1張 앞면.

三. 後期의 印本들

後期의 印本은 14종을 찾아내었다. 張混이 没去한 純祖 28년(1828)부터 이후 약 30년간의 인본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 후기의 인본으로는 文集 3종, 醫書 1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一山先生이 지적한 대로 道家書가 대부분이다.

10. 斐然箱抄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所藏 華山文庫本과 서울大學校 圖書館藏本을 實查하였다. 全 3卷 1冊으로 크기는 세로가 26.5cm 가로가 16.7cm이다. 이 책 첫머리에는 〈斐然箱抄序〉 1장이 있다. 거기에

…此張君斐然箱抄之 所必刊也 其友人李君紫田尸之·玄君報汝 出貨助成… 頃余客西州 倩人繕數本
豕亥… 遂用活字入印… 咸豐七年春崔璉煥書

라 있어, 哲宗 8년(1857) 丁巳의 봄에 崔璉煥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本文의 卷首題는 「斐然箱抄」이며, 卷次는 「卷之一」이고, 다음 行에 「玉山 張之琬 著」라는 저작자 표시가 있다(圖 16 참조). 卷之一 제 1 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 19×13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斐然箱抄」上 白魚尾(雙線, 雙絲) 〈卷一〉
(張次) 單線. 下白口.

와 같다. 本文은 卷之一~三이며, 3권 모두 합하여 88장이나 된다.

崔璉煥이가 어떻게 筆書體木活字를 구하여 《斐然箱抄》를 인출하였는지 모르지만, 張之琬
이가 張混의 제자였음이 이 책에 있는 〈張先生混傳〉의 文末에

之琬曰 先生吾先子畏友也… 長遊於門下…

라 있으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사람의 文集을 인출하기 때문에, 활자를 빌려주지 않았을
나 생각되나 알 수 없다.

11. 惟靈集

이 책은 國立中央圖書館과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 20冊 完本⁽¹²⁾이 있으며, 零本落秩은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 實查한 것은 高大本이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가 25.3cm 가로가 15.6cm인 線裝方冊本으로 되어 있으며, 첫머리에
는 標題紙도 없이 〈性靈集序〉 3장으로 시작된다. 이序는 편찬자인 崔璉煥이가 이 《性靈集》
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적고서 마지막에

(12) 請求記號 D2-A

…集始於東歸甲寅之歲 迄今戊午而成 集既成 序其槩如右 是歲之陽月 於是齋主人 藥城崔璽煥玉書

라 한 것과 같이, 哲宗 5년(1854)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5년후인 哲宗 9년(1858)에야 완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책은 一~五集·續集·補遺補遺·續集 등複雜한 “集” 구성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은, 序 다음에 있는 〈性靈集凡例〉 9조를 읽어 보아야만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凡例 앞의 3개조에 있는 다음 글에

一是集 始自漢魏 以至于今猶之 承頌雅國風之後 故先秦以上 古逸詩 槩不錄也

一集中取五言七言 或長短句 其三言四言則不取 為疑於古逸也

一是集 分一二三四五集及 繼集及 补遺及 繼集補遺 如漢魏南北朝詩爲一集 三唐五代詩爲二集 宋金元詩爲三集 明詩爲四集 清詩爲五集 歷代名媛詩爲續集 歷代摘句詩爲補遺 歷代名媛摘句詩爲續集補遺也

라고 한 것에서 특히 알 수가 있다. 崔璽煥은 이 詩選이 集次의 매김에서 앞으로도 무한히 繼續編集이 가능함을 凡例 제 4 조에서 밝히고 있다. 各集중에 시의 차례는 凡例 제 6 조에서

一集中 先五言古 次七言古 次五言律 次七言律 次五言絕句 次七言絕句 其五言排律及七言排律·六言絕句 名爲附錄 各以其類 附於五律·七律·五絕之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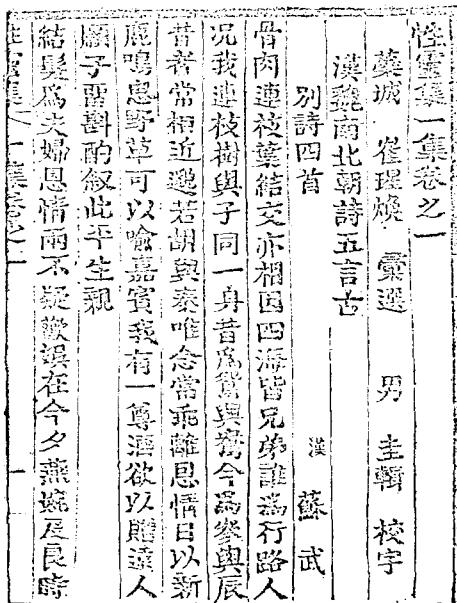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凡例〉 2장이 끝난 다음에 〈一集〉이 시작된다. 〈一集〉은 머리에 「惟靈集一集漢魏南北朝詩目錄」 1장이 있으며, 모두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卷之一 제 1 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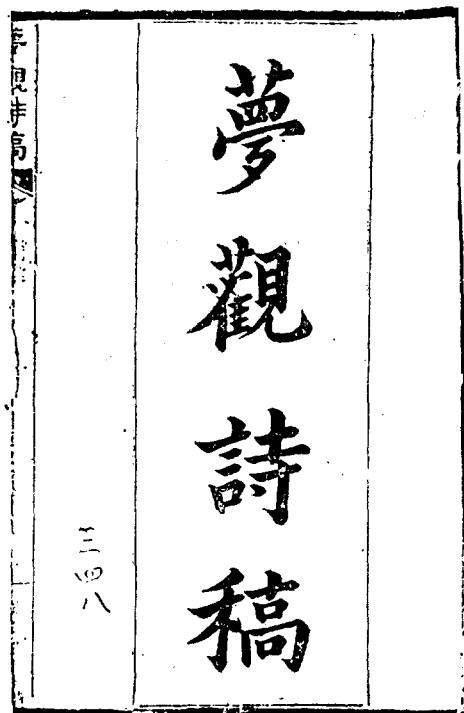
四周單邊. 半匡 : 17.4 × 12.4cm. 有界. 10行 20字, 小字 單行. 版心 : 「性靈集」 上 白魚尾 (單線. 單絲) 「一集卷之一」 (張次) 單線. 下白口

와 같다(圖 17 참조). 이 책의 完秩에 대한 書誌的인 참고로 각 책차별로 内容目次와 張數를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冊次 | 目 次 | 張數 |
|----|--------------|-------|
| 1 | 序·凡例 | 3+2 |
| | 一集 漢魏南北朝詩 目錄 | 1 |
| | 一集 卷之一 | 43 |
| 2 | 一集 卷之二~三 | 21+14 |
| 3 | 二集 三唐五代詩 目錄 | 1 |
| | 二集 卷之一~二 | 37+42 |
| 4 | 二集 卷之三~四 | 38+46 |
| 5 | 二集 卷之五~六 | 35+44 |
| 6 | 三集 宋金元詩 目錄 | 1 |



■ 17. 性靈集一集卷之一 第1張 臺面



■ 18. 夢觀詩稿，標題紙

| | |
|--------------------|-------|
| 三集 卷之一~二 | 22+29 |
| 7 三集 卷之三~四 | 27+34 |
| 8 三集 卷之五~六 | 23+32 |
| 9 四集 明詩 目錄 | 1 |
| 10 四集 卷之一~二 | 26+30 |
| 11 四集 卷之三~四 | 23+29 |
| 12 四集 卷之五~六 | 25+29 |
| 13 五集 清詩 目錄 | 1 |
| 14 五集 卷之一~二 | 33+46 |
| 15 五集 卷之三~四 | 40+45 |
| 16 五集 卷之五~六 | 25+29 |
| 15 繢集 歷代名媛詩 目錄 | 1 |
| 16 繢集 卷之一~二 | 25+32 |
| 17 繢集 卷之三~四 | 23+27 |
| 18 繢集 卷之五~六 | 24+38 |
| 18 補遺 歷代摘句詩 目錄 | 1 |
| 19 補遺 卷之一~二 | 33+33 |
| 19 補遺 卷之三~四 | 26+38 |
| 20 繢集補遺 歷代名媛摘句詩 目錄 | 1 |
| 20 繢集補遺 卷之一~二 | 22+27 |

이 目次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張混이 편집한 《詩宗》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詩首數를 수록한 中國人詩集이며, 그 張數만도 모두가 1,216장이나 되는 거질이다.

12. 夢觀詩稿

이 책은 서울大學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이 있어 일찍부터 알려져 있다. 두 藏本 모두 實查하였다. 두 部가 四針眼으로 製綴되어 있으며, 粉唐紙에다 인쇄한 책이다.

책 첫머리에는 連字로 된 書名이 組版된 標題紙(圖 18 參照)가 있으며, 그 뒤에는 「咸豐己未初秋活字印成」이라는 인출기가 木板으로 조판되어 있다(圖 19 參照). 다음에는 〈夢觀詩稿序〉 2장이 있다. 이 序文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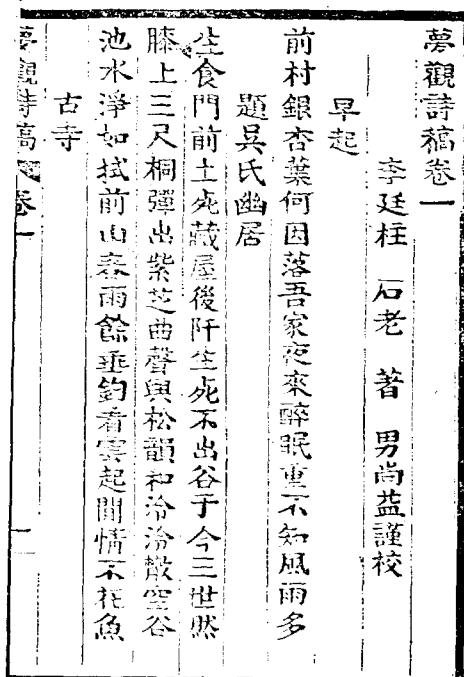
吾友李君士謙 犧者見示 先尊甫夢觀先生遺稿若干卷… 今將付手民… 咸豐己未秋七月蓴城李閔益謹序
라 적혀 있다.

〈夢觀詩稿目錄〉 제 1 장에는 卷一~三까지의 總詩首數가 모다 248首이며, 약간의 散句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卷一은 「夢觀詩稿卷一」이라는 卷首題와 卷次表示로 시작된다. 그 다음 行에는 「李廷柱 石老 著 男尚益謹校」라는 저작자 표시가 있는데, 이 책이 李廷柱의 詩稿이며, 아들인 李尚益이 校正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卷一 제 1 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匡 : 19×12cm. 有界, 9行 21字. 版心 : 「夢觀詩稿」 上黑魚尾 (單線, 單絲)



■ 19. 夢觀詩稿, 標題紙 裏面, 印出記



■ 20. 夢觀詩稿, 卷一 第 1 張 앞면

「單一」(張次) 單線, 下白口.

와 같다. 卷一~三은 각각 21.22.20장으로 모두 63장이나 된다. 권말에는 題가 없고 版心 題가 「夢觀詩稿跋」이라고 되어 있는 跋文 1장이 있다.

그 跋文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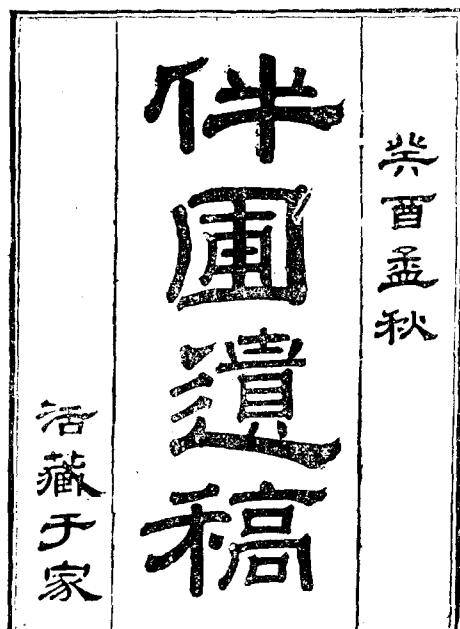
…先大夫 平日好爲詩… 今茲采出而輯之 屬從祖昆弟尚迪 又爲之商訂釐選 得三百四十八首 而略取散句附之卷尾… 亟付剞劂而成之 咸豐己未初秋 男(尚益)謹識

라 있다. 이상에서 인용한 여러 글들을 보면, 아들 李尚益과 그 從弟되는 李尚迪이가 함께 이 《夢觀詩稿》를 편찬하여, 哲宗 10년(1859) 己未 7월에 筆書體木活字로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夢觀詩稿》는 高宗 28년(1891) 辛卯 7월에 敦岩字로 인쇄한 重刊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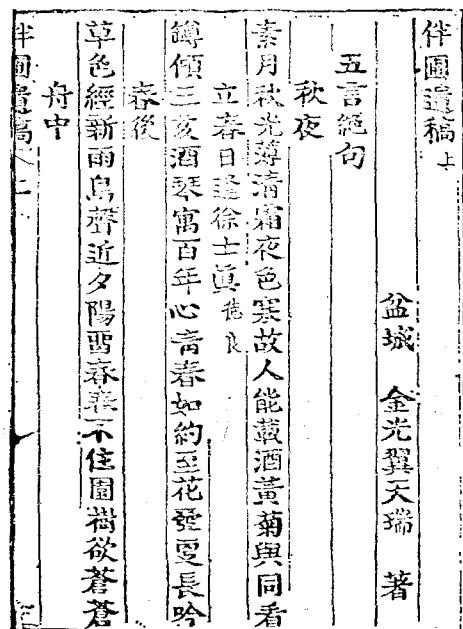
13. 伴圃遺稿

이 책은 一山先生의 舊藏本인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을 實查하였다. 全 2卷 1冊으로 粉唐紙에 인쇄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세로가 25cm 가로가 16.2cm이다.

책 첫머리에는 木板으로 된 標題紙가 있으며, 거기에 「癸酉孟秋 伴圃遺稿 活藏于家」라 있어, 高宗 10년(1873) 癸酉에 활자로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圖 21 참조). 그 다음에는 屢翁 李晚秀가 쓴 〈伴圃遺稿叙〉 4장이 筆蹟의 原形 그대로가 木板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叙는 「癸酉季夏竹石寫入刻」이라 文末에 小字로 註記된 것을 보면, 高宗 10년의 6월에



■ 21. 伴圃遺稿, 標題紙.



■ 22. 伴圃遺稿〈上〉第1張 앞면.

板刻하였음을 알 수 있다.

《伴圃遺稿》〈上〉의 目錄 3장에 이어, 本文 8장이 시작된다. 〈上〉의 제 1장은 卷首題와 함께 〈上〉이라는 卷次表示가 있고, 다음 行에 「盆城 金光翼天瑞 著」라는 저작자 표시가 있다. 〈上〉 제 1장 앞면의 版式은

四周雙邊. 半匡 : 18.3 × 12.5cm. 有界. 10行 20字, 小字 單行. 版心 : 「伴圃遺稿」上 白魚尾 (單線, 單絲) 「上」〈張次〉

와 같다(圖 22 참조). 〈上〉에 이어 目錄 〈下〉 3장과 〈下〉 本文 20장이 있으며, 그 다음에 跡山 金道根이 쓴 〈伴圃遺稿跋〉 3장이 木板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뒤이어 秋史 金正喜의 글씨를 그대로 楷刻한 〈伴圃遺稿拾遺敘〉 3장과 〈伴圃遺稿拾遺目錄〉 3장과 拾遺의 本文 9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版心題가 「伴圃遺稿跋」이라는 跋文 1장이 筆書體木活字로 인쇄되어 있다.

이 跋文은 伴圃의 아들 金載明이가 썼으며, 詩 모두 120首와 散句 14韻을 모아서 인출한다는 전말을 밝히고 있다.

14. 演經篇

이 책은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藏本, 國立中央圖書館藏本 그리고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薦菴文庫本을 實查하였다. 全 1冊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가 25.5cm 가로가 16.3 cm이다.

첫머리에 木板으로 粉唐紙에 인쇄한 標題紙가 있다(圖 23 참조). 거기에

集福要訣毫無差. 新訂演經篇, 嶠城金世澤刊行

이라 있어 金世澤이 간행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어 〈演經篇序〉 1장이 있으니, 날짜없이 「白岳之西 如是齋中」에 漢壽侯가 나렸음을 밝히고 있다. 이 序文의 如是齋로 보아 崔頃煥이 지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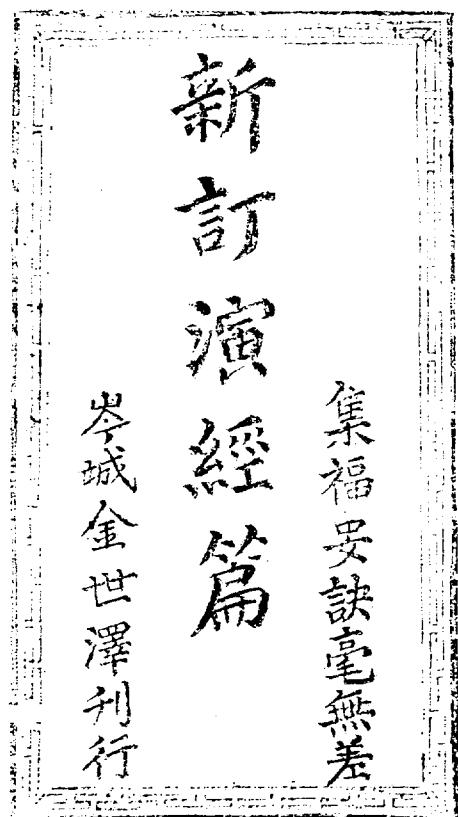
〈演經篇〉의 本文은 모두 27장으로 唐紙에 인쇄되어 있다. 그 제 1장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 18.7 × 13.4cm. 有界. 10行 20字 (或 小字 雙行) 版心 : 「演經篇」 上 白魚尾 (雙線, 双絲) 〈張次〉 單線, 下白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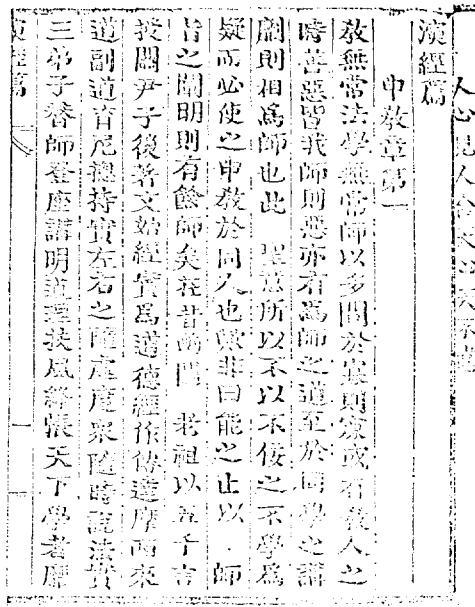
와 같다(圖 24 참조).

이 〈演經篇〉은 申教章第一, 挹敘章第二, 根壽章第三, 根富章第四, 根貴章第五, 根子章第六, 轉合章第七 등의 7개章과 附錄으로 報恩說 2則이 있다. 이 本文의 제22장 뒷면에

時光緒己卯春三月戊午 無相壇開聖化弟子 妙虛道人謹書于於是齋中



■ 23. 演經篇, 標題紙.



■ 24. 演經篇, 第 1 張 앞면

이라는 간기가 있어, 이 《演經篇》이 高宗 16년(1879) 己卯 3월 이후에 인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演經篇》의本文이 끝난 다음에는 〈毎日科儀〉 4장이 있으며, 끝으로 「鹿門徐蘭瓊跋」이라는 〈跋〉 1장이 붙어 있다. 이 책은 조사한 책중에서는 처음으로 보이는 이 活字印本의 道家書이다.

15. 太上感應篇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景和堂文庫本이다.⁽¹³⁾ 前記한 《演經篇》과 合經한 것도 있다. 모두 23장으로 되어 있다. 그 제 1 장 앞면의 版式은

四周單邊. 半匡 : 18.8 × 13.3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演經篇」上 白魚尾 (雙線, 雙絲) 〈張次〉
單線. 下白口.

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演經篇》의 일부분으로 간행하였던 것을 分책으로 緜하였음을 짐

(13) 請求記號 C2-A29.

關帝寶訓卷三目錄

| | |
|------|------|
| 淫人妻女 | |
| 倪天錫 | 泣訴淫孽 |
| 朱煥 | 恣淫僕婦 |
| 任太和 | 貪淫絕嗣 |
| 項希憲 | 陸仲錫 |
| 悔淫登第 | 神譴淫心 |
| 袁公 | 南京生 |
| 還婦逢子 | 貪淫殺身 |
| 洪燾 | 力改淫惡 |
| 壞人名節 | |
| 王生 | 破壻削祿 |
| 蘇允明 | 全人夫婦 |
| 宋芝 | 刻薄詬人 |

■ 25. 太上感應篇, 第 1 張 앞면.

■ 26. 關帝寶訓卷三目錄 第 1 張 앞면.

| | |
|-----|--|
| 更經篇 | 太上感應篇 |
| | 太上曰禍福無門惟人自召善惡之報如影隨形是以天地有司過之神依人所犯輕重以適人算算減則貧耗多逢憂患人皆惡之刑禍隨之吉慶避之惡星灾之算盡則免又有三台北斗神君在人頭上錄人罪惡奪其紀算又有三尸神在人身中每到庚申日輒上詣天曹言人罪過月晦之日竈神亦然凡人有過大則奪紀小則奪算其過大小有數百事欲求長生者先須避之是道則遠非道則近不履邪徑不欺暗室積德累功慈心於物忠孝友悌正己化人矜 |
| | |
| | |
| | |

작할 수 있다(圖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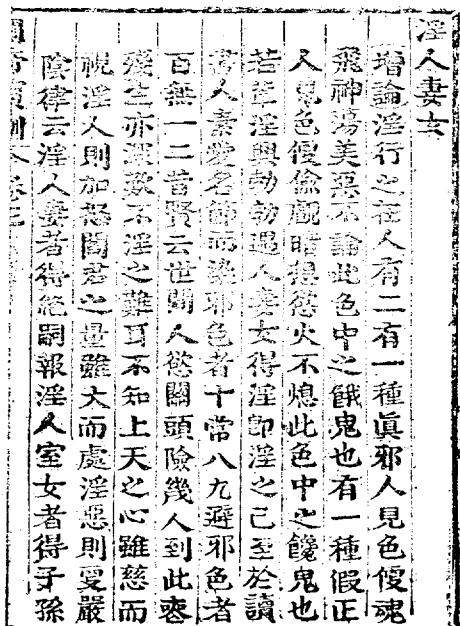
이 책 역시 道家書로, 그 내용은 머리에 〈太上玄靈北斗本命延生真經〉을 둔 다음, 警戒章第一, 孝感章第二, 士行章第三, 日用章第四, 官守章第五, 道釋章第六 등 6장과 끝으로 〈陰陽文〉·〈明教…關聖帝君覺世經〉·〈關教…孚佑帝君心經〉 등의 經文을 실고 있다.

16. 關帝寶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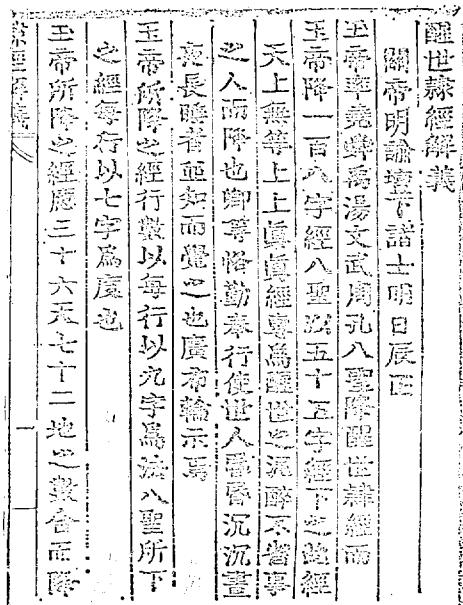
이 책은 그 完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완전하게는 調查하지 못했지만, 卷一~二의 零本 2책이 國立中央圖書館 古朝鮮本에 있으며, 卷三이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景和堂文庫에 남아 있어, 零本이지만 모두 3책만을 實查하였다.

이 책은 原來 全 4卷이 完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는 國立中央圖書館 藏本中에 같은 내용으로 된 〈關帝寶訓像註〉라는 책이 있어 짐작케 한다. 또 이 筆書體木活字本에는 序·印出記 그리고 標題紙가 없어, 그 인출년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活字本의 版式이라든지 또 國立中央圖書館藏本 像註本의 標題紙에 「光緒壬午孟秋…」 즉 高宗 19년(1882)壬午이라 있어 이때를 전후하여, 活字本을 인출하지 않았나 짐작할 뿐이다.

이 〈關帝寶訓〉은 그 내용이 道家書로서, 在世時에 惡業을 쌓지 말고 善德을 쌓으라는 勸善의 의미가 담긴 例話集이다. 인출의 底本이 된 것은 중국책이었던 모양으로, 제 1책의 첫머리에 쓴 사람의 표시가 없이 「…雍正九年歲在辛亥陽月吉旦」이라는 〈序〉 1장에 의하여



■ 27. 關帝寶訓卷三 第1張 앞면



■ 28. 醒世隸經解義 第1張 앞면

집작할 수가 있다.

<序>에 이어 <關聖帝君覺世寶訓> 2장이 있으며, 다음 각卷이 시작된다. 각卷의 卷首에는 目錄이 있다. 이 卷首 目錄에만 卷首題와 卷次表示가 있으며(圖 26 참조), 각卷의 本文에는 卷首題나 卷次 없이 바로 그 卷의 첫 例話의 題와 함께 例話가 시작된다(圖 27 참조).

남아 있는 세 卷을 보면, 卷一은 <目錄> 4장에 「人生在世, 教子孫」 등 22개 항목에 東平王, 巨盜 등 72명분의 목록이 있으며, 人生在世로 시작하는 例話가 60장 있다. 卷二是 <目錄> 4장에 「時行方便 廣積陰功」 등 32개 항목에 袁待賢, 解敏 등 62명분의 목록이 있으며 時行方便으로 시작하는 例話 58장이 있다. 卷三에는 <目錄> 4장에 「淫人妻女, 破人婚姻, 壞人名節」 등 33개 항목에 倪天錫, 朱煥, 任太和 등 68명의 例話 60장이 실려 있다.

참고로 그 版式을 보면 아래와 같다.

四周單邊. 半匡 : 18.3 × 12.4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關帝寶訓」上 白魚尾 (單線, 單絲) 「卷一」<張次>

17. 醒世隸經解義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에 남아 있다.⁽¹⁴⁾ 크기는 세로 25.7cm 가로 16.8cm인 線裝方冊本으로, 全 1冊이다. 表紙는 卵白色으로, 그 背接紙로는 《潭庭藁》와 《文

(14) 請求記號 華山 C2-A52.

化柳氏族譜》의 破紙를 썼으며, 本文은 唐紙에다 인쇄하였다.

이 책을 인출한 날짜는 序·跋·印出記 등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表紙 條接紙로
는 《澤庭彙》에 高宗 17년(1880) 庚辰의 序가 있으며, 本文 제 8 장 뒷면에

…徐蘭瓊…癸未八月十八日 降無相壇少試神妙之理作魔筆

그리고, 같은 本文 제 9 장 뒷면에

…降此天隸二真經 黑羊秋八月十有九日亭午始未刻終文昌

이라는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아 高宗 20년(1883) 9월경에는 찍었지 않나 생각된다.

이 《醒世隸經解義》는 標題紙가 없이 바로 本文이 시작된다. 卷首題는 같으며, 다만 版心
題가 「隸經解義」로 略하여져 있다. 이 책 제 1 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 18.7 × 13.3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隸經解義」上 白魚尾 (雙線, 雙絲) <張
次> 單線. 下白口.

와 같다(圖 28 참조). 이 解義 6장이 끝난 다음에 이어 제 7~11장에는 卷首題가 「天隸真經
解義」라는 解義가 하나 더 있다. 그 版式과 版心題는 앞의 것과 같다.

18. 敬善經

이 책 역시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本에 1책이 있다.⁽¹⁵⁾ 그 크기는 세로가
26.9cm 가로가 16.9cm의 線裝方冊本으로 楷紙에 인쇄되어 있다. 서울大學校圖書館 古圖書
本에도 1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다음에 말하는 《三聖帝君忠孝經》과 合綴된 것이 1부 남아
있다. 이로 보아 이 두가지 책은 동시에 간행된 것 같다.

《敬善經》은 <十二大藏 天隸字緣起> 1장과 <目錄> 1장 그리고 <第一藏>부터 <第十二藏>까
지가 각각 1장으로 12장 합하여 전 14장에 불과한 小冊子이다.

이 책에는 정확한 인출기록이 없으나, 첫머리에 있는 <緣起>에

上帝諭宋錫祐 明日午正降於妙經矣 汝明朝入來崔聖煥家… 爾之三兄弟入來 降戰後郎是開刊 印造經
文… 明日降戰時 與徐蘭瓊同舉行… 侍壇弟子雲道宋錫祐承宣并刊 雲中徐蘭瓊 隸字解義

라 있어, 崔聖煥家에서 앞의 《醒世隸經解義》를 解義한 徐蘭瓊 그리고 宋錫祐 등 3인이 함
께 간행하였으며, 그 간행시기는 《醒世隸經解義》와 거의 동시에 아닌가 생각된다.

《敬善經》의 本文는 그 <目錄>에 있는대로, 靈妙經·誠篤經·三可經·治平經·撫要經·法
天經·入奧經·成立經·推萬經·追危經·愛寶經·造玄經 등 모두 12경의 隸書를 漢字로 옮
긴 것이며, 이 每經을 각 1장에다 싣고 있다. 참고로 그 版式을 보면,

(15) 請求記號 華山 C2-A53.

四周單邊。半匡：18.6×13.2cm. 有界。10行 20字。欄上「上」1字。版心：「敬善經」上 白魚尾（雙線。雙絲）〈張次〉單線。下白口。

와 같다(圖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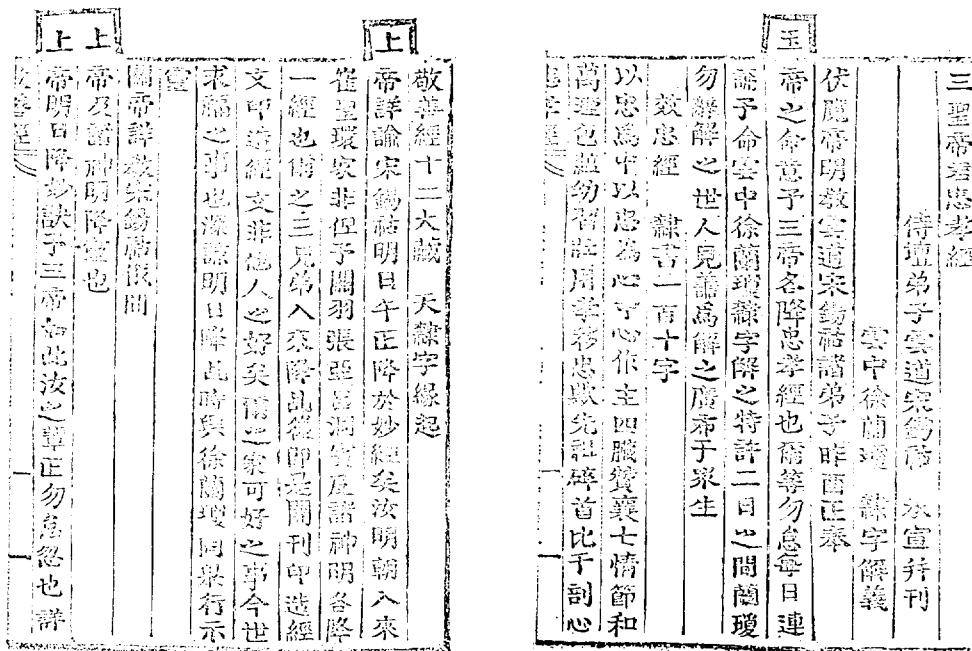
19. 三聖帝君忠孝經

이 책 역시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本에 남아 있다.⁽¹⁶⁾ 全 1册으로 그 크기는 세로가 27cm 가로가 16.8cm인 線裝方冊本으로 되어 있다. 서울大學校圖書館 古圖書本의 《敬善經》뒤에 合綴된 一本이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華山文庫本은 題簽을 木板으로 인쇄하였으며, 本文은 楷紙에 인쇄하였다.

이 책은 머리에 〈序〉 8首가 首當 각 1장으로 모두 8장, 이어 〈緣起〉가 1장, 〈目錄〉이 1장, 本文이 3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跋〉 4首가 首當 각 1장으로 모두 4장, 합하여 17장 뿐인 小冊子이다. 더구나 序·跋이 本文보다 더 많이 있다. 이 책 첫머리의 첫 首의 序에 보면

大堯明教雲道宋錫祐 三聖帝君各降忠孝經也…雲中徐蘭瓊 韓書忠孝經解之 然後隸書字序解之 予特許一日間 速速解之 廣布于衆生

이라 되어 있어, 앞에 든 《敬善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徐蘭瓊·宋錫祐가 이 經의 간행에도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9. 敬善經, 緣起 第 1 張 앞면

■ 30. 三聖帝君忠孝經, 第 1 張 앞면

(16) 請求記號 華山 C2-A54.

本文의 첫 장은 卷首題 다음 行에 「侍壇第子雲道宋錫祐 承宣并刊. 雲中徐蘭瓊 隸字解義」라 있으며, 解字하여 수록한 經은 敹忠經 ·一心盡孝經 ·警世忠經 ·必孝經 ·勸忠妙經 ·孝子經 등 6經이다. 참고로 제 1 장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半匡： 18.8×13.2 cm。有界，10行 20字。版心：「忠孝經」上 白魚尾（雙線、雙絲）〈張次〉單線，下自口。

와 같다(圖 30 참조).

20. 玄化實營(甲本)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本과 國立中央圖書館 一山文庫에 각 1부가 남아 있다. 全 1册으로 크기는 세로가 29cm 가로가 19.4cm이며, 表紙는 卍字斜交 混入 蓮華紋으로 뒤 莲華紋을 押印한 것을 쓰고 있다.

머리에 「光緒十季仲夏，玄化寶鸞，無相壇敬繡」라고 木板으로 찍은 標題紙가 있어，高宗 21년(1884) 甲申 5월에 인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圖 31 참조). 이어 〈序〉 8首 모두 8장이 있는 바，날짜도 없이 放勳恭·夫重華·夏禹·湯九·文王·武王·周公·孔丘 등 儒教 聖賢들의 名儀로 된 알쏭달쏭한 글을 싣고 있다.

本文은 모두 65장이며, 첫장 머리에는 卷首題에 이어, 다음 3행에 걸쳐 「雲中<臣>徐蘭璣
承宣. 道明<臣>朴晉陽 奉彙. 繪峯<臣>金泰冕 奉校」 등 관계인명을 밝히고 있다. 이 제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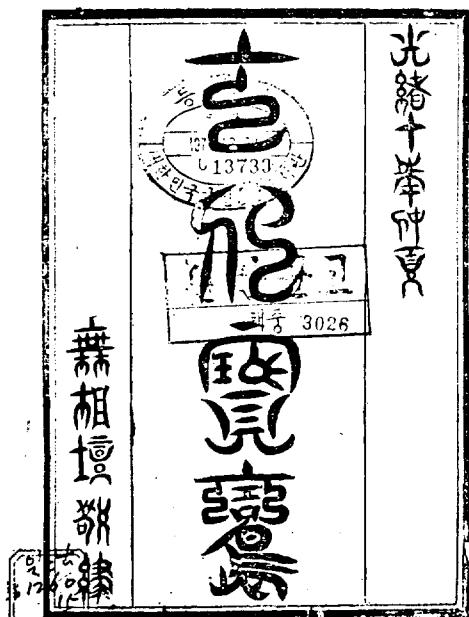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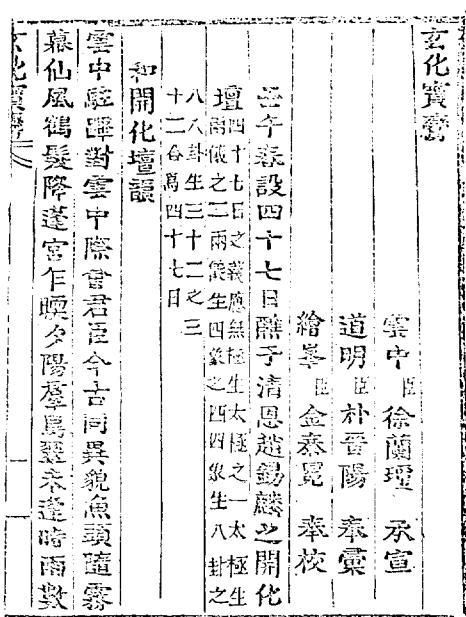


圖 31. 玄化寶鑑(甲本) 標題紙



■ 32. 玄化寶鑑(甲本) 第1張 앞면

앞면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半匡：18.7×13.4cm. 有界。10行 20字，小字 雙行。版心：「玄化寶鑑」上 白魚尾（雙線。雙絲）〈張次〉單線。下白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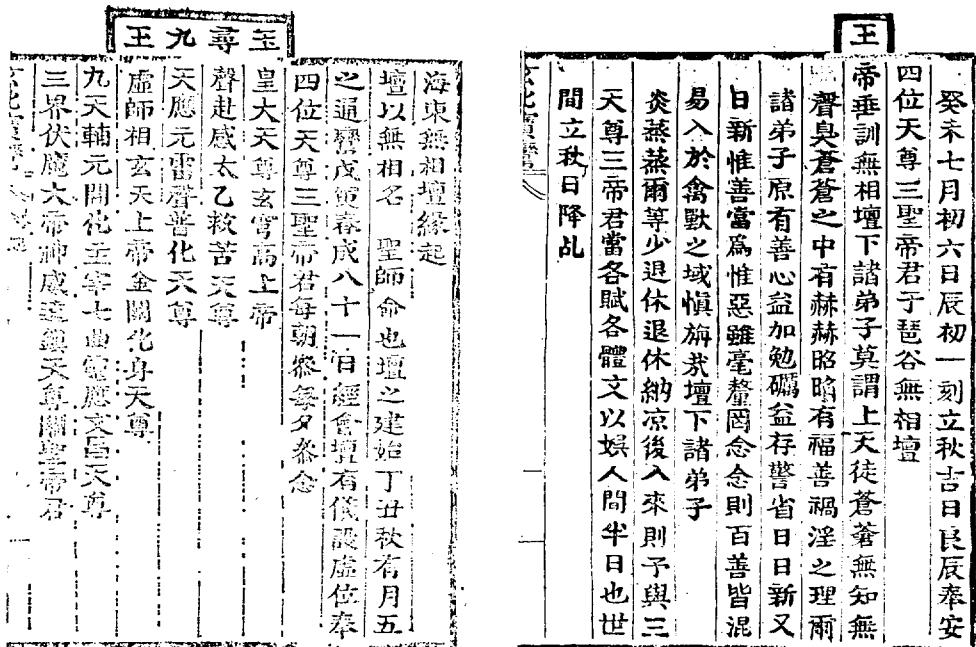
로 되어 있다(圖 32 參照)。여기에서 사용된 小字들은 而已廣이 사용하였던, 筆書體木活字의 小字가 아니고, 印書體木活字의 小字를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本文에 이어 〈跋〉 4首 모두 4장이 있는데, 이들 역시 날짜없이 儒教의 聖賢들인 顏回·曾參·孔伋·孟軻 등의 이름으로 된 아리송한 글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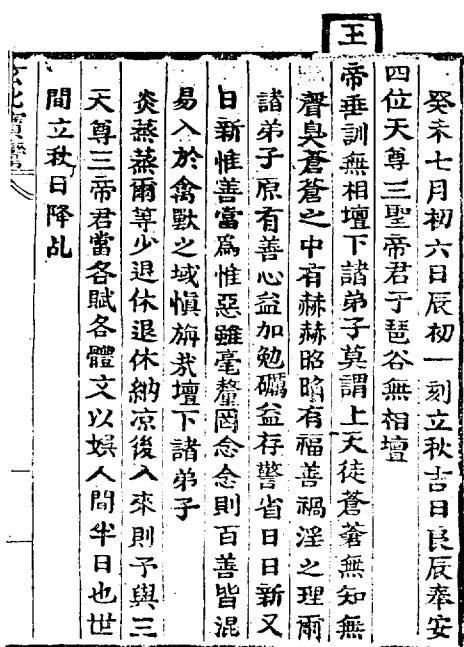
21. 玄化寶鑑(乙本)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古圖書本과 華山文庫本에 있다.⁽¹⁷⁾ 全 1冊으로 크기는 세로가 18.5cm 가로가 13.5cm이며, 앞의 甲本과는 세로의 크기가 約 10cm나 작은 책이다.

卷首에 「海東無相壇緣起」라는 卷首題가 있는 글이 2장 있고(圖 33 參照), 이어 卷首題가 없는 本文이 제 1 장으로 시작하여 31張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海東無相壇緣起로 착각할 뻔 하였다. 그런데 版心에 「玄化寶鑑」이라는 版心題가 있어 《玄化寶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前記 甲本에는 이와 꼭 같은 체재의 글이 실려 있지 않았으며, 또 인쇄한 料紙의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따로따로 인쇄하지 않았나 생각되



■ 33. 玄化寶鑑(乙本) 錄起 第 1 張 앞면



■ 34. 玄化寶鑑(乙本) 第 1 張 앞면

(17) 請求記號 C2-A45 및 華山 C2-A45.

나 알 수 없다. 그리고 本文 첫장의 머리에 「癸未七月初六日…」이라는 글귀가 있어, 어찌
면 이 책이 앞의 甲本을 찍은 해의 前年인 高宗 20년(1883) 癸未의 년말까지는 인출되었지
않나 생각되나, 이 역시 別本들을 實查하지 못하여 알 수 없다. 이 책을 찍은 活字는 印書
體의 小字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도 앞의 甲本과의 인출의 선후관계를 추정하는 데에 도움
이 될까 생각한다. 참고로 제 1 장의 版式을 보면

四周單邊. 半匡 : 18.5 × 13.5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玄化寶鸞」上 白魚尾 (雙線. 雙絲) 〈緣
起〉〈張次〉單線. 下白口.

로서, 앞의 甲本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다(圖 34 참조).

22. 關聖帝君開化大程

이 책은 一山先生에 의해 「開化大程」이라고 소개된 책으로, 현재 國立中央圖書館 一山文
庫에 남아 있다. 全 1冊으로 그 크기는 세로가 25.7cm 가로가 16.8cm이다. 表紙는 赤色
題簽에 木板으로 「開化大程」이라고 書名을 찍어 놓았다.

책 첫머리에는 文昌의 序, 漢壽亭侯의 「阜駒端陽月之晦朝」日字로 된 自序, 南宮佐理姜
眞人·夫董永·關平百·王甫·趙累·周倉 등 8명의 序 8首가 모두 9장에 장황하게 있다.
이어 〈總目〉 1장이 있은 다음에 本文이 시작한다.

本文의 첫장은 卷首題 다음 3行에 걸쳐 「開化壇蓮花閣雲中子徐蘭瓊 承宜. 鏡月齋清恩子
趙麟 奉輯. 養浩齋明敏子朴浩 奉定」이라고 관계인명을 밝히고 있다. 이 첫장 앞면의 版
式은

四周單邊. 半匡 : 18.7 × 13cm. 有界. 10行 20字. 版心 : 「開化大程」上 白魚尾 (雙線. 雙絲) 〈張次〉
單線. 下白口.

와 같으며(圖 35 참조), 小字는 筆書體木活字로 쓰고 있다.

本文은 모두 27장으로, 수록된 내용은 經類가 5로 五常經·三綱經·四維經·七情經·警
世經·罕言經이며, 訓類가 2首로 普警訓과 通悟訓, 文類가 2首로 諭開化文과 勉忠孝文, 마
지막으로 歌類가 2首로 勸孝歌와 歷年歌가 있다. 이 本文이 끝난 다음에 이어 呂純陽의 名
儀로 된 〈跋〉 1首 1장이 더 붙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룬 바는 孝와 忠에 입각하여 人倫을 개화하려는 道家思想을 펴는 데 그 목
적이 있다고 하겠다.

23. 脈 經

이 책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華山文庫本에 零本 3책이⁽¹⁸⁾ 있어 實查하였다. 그 크기

(18) 請求記號 華山 C6—A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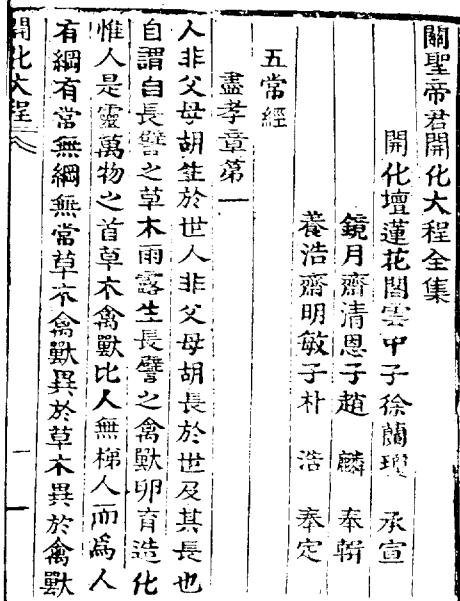


圖 35. 關聖帝君開化大程全集 第 1 張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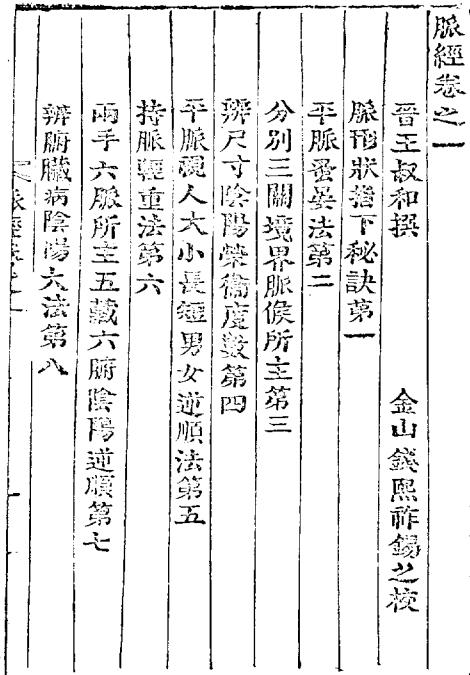


圖 36. 脈經卷之一 第 1 張 앞면

는 세로가 29.4cm 가로가 18.5cm인 線裝方冊本으로 되어 있어, 《玄化寶鑑》(甲本)과 같이 비교적 큰 종이에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1 책의 첫머리에는 이 活字本의 底本으로 생각되는 原本의 序인듯한 「泰定四年歲次丁卯閏九月既望」 日字로 된 謝縉翁의 〈脈經序〉 1장이 있다. 이어 제 2 장부터 제 7 장까지는 〈宋校定脈經進呈箚子·宋刻脈經牒文·元刻脈經序〉와 같은 여러 글이 있는 다음 本文의 卷之一이 나온다.

本文의 첫머리는 卷首題 다음 行에 「晉王叔和撰 金山錢熙祚錫之校」라 하여 撰者가 晉의 王叔和임을 밝히고 있다. 바로 이어 目次의 표시없이 그 卷次에 들어 있는 細目을 열거한 다음 바로 本文이 이어서 나온다. 이 卷之一 제 1 장 앞면의 版式은 다음과 같다(圖 30 참조).

四周單邊, 半匡 : 21.4×13.7cm. 有界, 10行 23字, 版心 : 上下白口, 上 白魚尾 (雙線, 雙絲) 「脈經卷之一」 (張次) 單線.

이 版式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앞의 22종의 版本이 모두 10行 20字인데 비하여 3字나 더 많은 10行 23字의 行字數를 가진 大型 版本임을 알 수 있다.

남아 있는 零本은 卷之一~三, 七~十 뿐으로, 卷之十의 마지막에 「辛丑重五金山錢熙祚

識」라는 〈脈經跋〉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초에는 全 10卷이 인출되지 않았었나 짐작이 간다.

四. 맷 음 말

以上으로서 張混의 而已廣筆書體木活字로 찍은 23種의 印本을 살펴보았다. 그중 8種은 一山 金斗鍾先生이 이미 제시한 것이며, 나머지 15種은 새로이 찾아낸 것이다.

張混이 生存中에 印出한 9種은 一山先生께서 말한 바와 같이, 張混의 著作과 張混과 가까운 사람들의 著作을 印出하였다.

張混의 没後에 찍은 14種은 張混의 弟子인 張之琬의 著作을 筆頭로 역시 張混과 關係가 있는 사람의 文集인 夢觀과 伴圃의 文集을 찍었으며, 道家의 책을 많이 찍어 내었다.

張混의 文集속에서 그가 道家의 生活에도 어느정도 接近하였다는 證據도 보여, 그의 筆書體 木活字가 道家書를 찍는데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되나, 張混의 傳記를 더 다듬기 前에는 斷言하기 힘들다. 本稿에서는 紙面關係로 다루지 못했지만, 張混에 대하여는 別稿로 미룰까 생각한다. 그리고 小型의 筆書體活字 印本들도 全國的인 規模로 實查가 끝나면 더 出現할 것으로 期待된다. 同學의 叱正을 바란다.